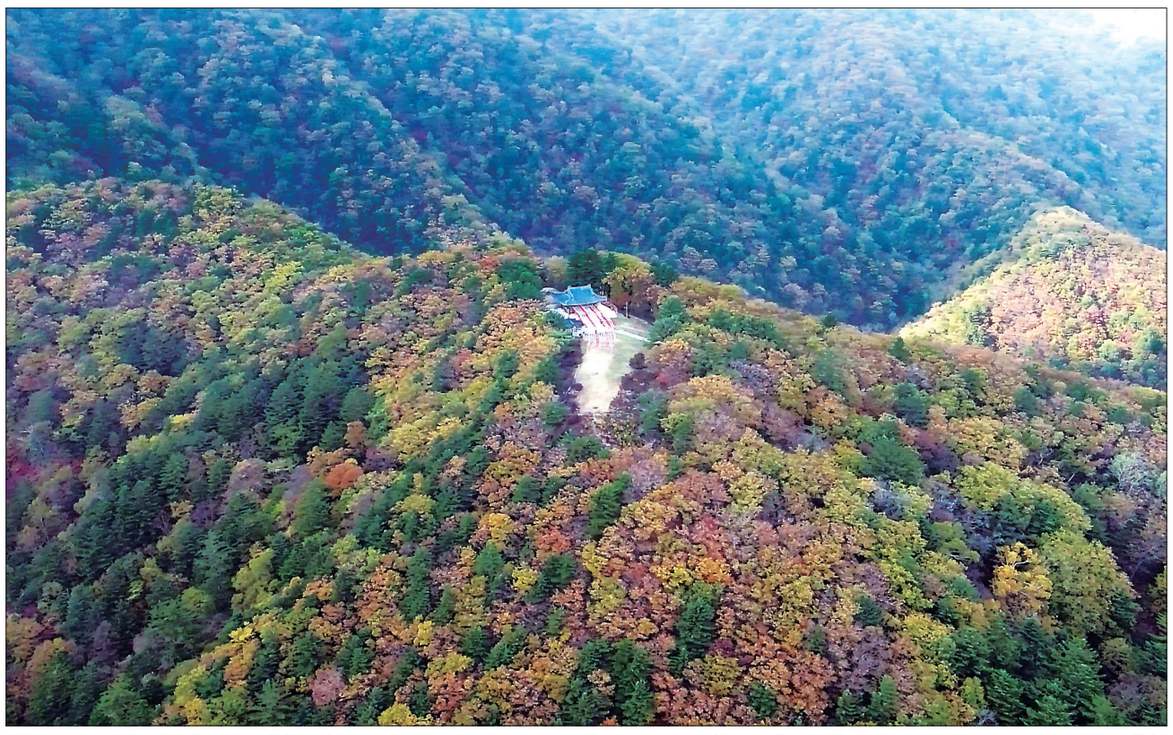
오대산에 서린 수행 정신 집대성



자장 율사
김형중 지음 / 민족사 / 1만6500원

범일 국사
조민기 지음 / 민족사 / 1만6500원

나옹 선사
이정범 지음 / 민족사 / 1만6500원



강원도 오대산은 자장 율사부터 근현대 한암 · 탄허 · 만화 선사에 이르기까지 1400년 수행의 기운이 깃든 명산이다. 월정사는 신라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오대산의 수행 전통을 정리하는 '오대산의 고승' 총서를 발간한다. 사진은 오대산 적멸보궁. 사진 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월정사 '오대산의 고승' 총서 10권
고승 8인 가르침…1차분 3권 출간
정념 스님 "전환 시대 필요한 지혜"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오대산에 깃든 1400년 수행 정신이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가 기획한 '오대산의 고승' 총서가 1차분 3권을 선보이며 한국불교사의 새로운 서술 방식을 제시했다.

이번 총서는 오대산과 인연을 맺은 고승 8인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통사와 자료집을 포함한 총 10권으로 기획됐다. 1차로 〈자장 율사〉 〈범일 국사〉 〈나옹 선사〉 3권이 출간됐고 내년 상반기 완간될 예정이다.

총서는 정념 스님의 구상에서 시작됐다. 스님은 "오대산은 과거에 머문 산이 아니라 지금도 4개 선원에서 100여 명의 선승들이 치열하게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공간"이라며 "고승들의 생애와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고, 그 정신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번 작업을 "오대산이라는 정신 공간의 계보를 세우는 작업"으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기획 의도를 충실히 드러내기 위해 집필 방식부터 획기적으로 바꿨다. 기존 고승 전기가 학술적 평전이나 논문 형식이었다면, 이번 총서는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서사형 전기'라는 형식을 택했다. 철저한 사료 고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서사적 상상력을 더해 인물을 입체적으로 복원함으로써 독자가 고승의 삶과 가르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자장 율사〉를 집필한 김형중 작가는 "쉽고 재미있되 소설은 아니고, 평전이면서도 딱딱하지 않은 글을 요구받았다"며 "모델이 없는 작업이었기에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장 율사를 '신라불교의 설계자'로 재조명하며 기존 인식의 확장을 시도했다.

〈범일 국사〉의 저자 조민기 작가는 현장 답사를 통해 스님의 흔적을 추적하고, 기록의 공백은 절제된 상상력으로 보완했다. 그는 "스님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상상력을 발휘해 그려낸 스님의 탄생 장면을 눈여겨봐 달라"고 말했다.

〈나옹 선사〉를 쓴 이정범 작가는 역사와 서사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안고 집필에 임했다. 그는 "나옹 선사가 오대산에 머문 기간은 길지 않지만, 중요한 정신적 전환의 시기로 보고 서사를 구성했다"며 "기록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일정 부분 서사적 상상력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승들의 삶과 가르침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 자장 율사는 계율을 세워 교단의 기틀을 다졌고, 나옹 선사는 민중의 아픔을 어루만졌으며, 사명 대사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몸을 던졌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대의 혼란을 외면하지 않고 실천적 지성으로 응답했다는 데 있다.



총 10권으로 기획된 '오대산의 고승' 시리즈의 1차분 3권이 출간을 알리는 기자간담회가 4월 14일 열렸다. 왼쪽부터 이정범 작가, 윤창화 민족사 대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김형중 작가, 조민기 작가.

정념 스님은 "오대산의 1400년 수행 전통을 이어온 고승들은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실천적 지성으로서 민중과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다"며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오늘날 선각들의 지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미래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판을 맡은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이번 총서는 오대산이라는 공간을 중심축으로 신라부터 근현대까지 이어진 수행의 흐름을 하나의 계보로 조망하는 작업"이라며 "흩어진 인물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공간과 법맥의 연속성을 함께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오대산의 고승' 총서는 1차분 3권을 시작으로 〈신미 대사〉(백승권) 〈사명 대사〉(김인숙) 〈한암 선사〉(성재헌) 〈탄허 선사〉(강민숙) 〈만화 선사〉(이용범)을 비롯해 오대산의 역사를 통사로 정리한 〈오대산 불교 문화와 역사〉(이용범)와 관련 연구 자료집 〈오대산의 역사와 기록〉(이진선·김수진·이유진·전효진)이 차례로 출간될 예정이다.

"해석에서 벗어나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생각이 쉬는 사이
혜민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1만9800원



혜민 스님이 8년만의 신작 〈생각이 쉬는 사이〉를 출간하고 4월 13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혜민 스님(고담선원 주지)이 8년 만에 신작 〈생각이 쉬는 사이〉로 독자들과 다시 만난다. '힐링 멘토'로 대중적 사랑을 받았던 스님은 2020년 사찰 등록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자 강연과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몇 해의 시간을 건너 세상에 내놓은 이 책에는 한층 깊어진 성찰이 담겼다. 스님 스스로도 "다른 이들의 사정을 더 헤아리게 됐고, 이론이 아닌 온몸으로 느끼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책의 핵심은 '괴로움은 생각으로 만들어진다'는 통찰이다. 시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인생을 망친 듯하고, 팀장에게 보낸 메일에 답이 없으면 밤새 불안하고, 건강검사 결과지에 적힌 '추가 검사 권유' 문구에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타인의 말과 행동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러나 혜민 스님은 문제의 본질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에 있다고 진단한다.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는 상황 그 자체보다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두려움이 덧씌워진 해석의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혜민 스님 8년 만의 신작
"고통 근원은 상황 아닌 해석"

스님은 이를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로 정의하며, 단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열린다고 말한다. 감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흘러가는 '마음의 날씨'이며, 생각 또한 붙잡지 않으면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생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드러나는 온전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강조한다.

또 하나 주목할 메시지는 '애쓰지 말라'는 역설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통념과 달리, 스님은 오히려 그 '애씀'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깨달음은 무엇을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멈추고 내려놓는 데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때의 멈춤은 무기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깨어 있음'이다.

이러한 '깨어 있음'은 이웃을 위한 자비로 확장된다. 스님은 사단법인 다나를 통해 노숙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음식 나눔과 기부를 지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봉사한다'는 생각이 앞서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분들이 곧 부처님"이라는 마음으로 매주 200명의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며 안부를 묻고 평화를 기원한다.

실천의 바탕에는 18세부터 이어온 〈법화경〉 수행이 있다. 고담선원에서는 10년 넘게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온라인 기도와 독송을 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매달 한 차례 오프라인 법회를 열고 있다. 스님은 "〈법화경〉은 마음의 근본 자리, 더럽혀질 수 없는 부처의 본성을 밝히고 나아가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경전"이라며 "지금과 같은 시대에 더욱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혜민 스님은 "마음이 괴로울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괴로움이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생각에 빠져 있어 괴롭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괴로움에 잠 못 이루거나 열심히 수행해도 진척이 없어 답답하신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책의 인세는 노숙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음식 나눔에 전액 기부된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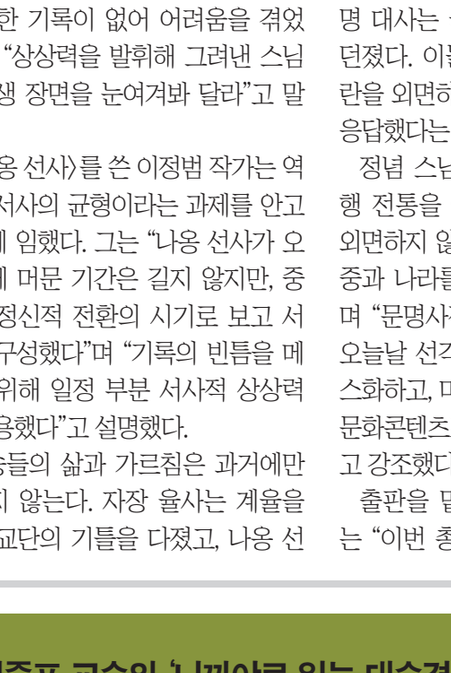
한국불교계 대표 석학 중각 이중표 교수의 '니까야로 읽는 대승경전' 시리즈 ❸

초기경전 『니까야』로 대승 논서
『대승기신론』의 핵심을 꿰뚫다!

"중생은 고장 난 생명 시스템이다"

초기경전 『니까야』와
현대의 일반시스템이론을
토대로 새롭게 읽는
『대승기신론』

중각 이중표 지음 | 464쪽
33,000원



니까야로 읽는 대승기신론
중각 이중표 역해
464쪽
33,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비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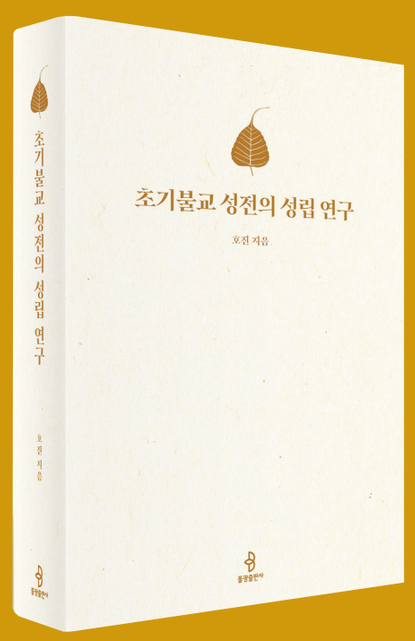
결집의 역사, 성전의 탄생을 밝히다

서로 상충되는 내용의 자료들 속
결집의 서사를 걷어내고 재검증한 불교 경전의 성립 과정

"경전은 어떻게 결집되었고,
이 사실을 전하는 자료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출가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학 연구에만 매진해 온
한국불교계 대표 학승(學僧)
호진 스님의 15년 연구 성과

호진 지음 | 496쪽
35,000원



초기불교 성전의 성립 연구
호진 지음

초기불교 성전의 성립 연구